

제8회 충북대학교 토론 대회 '논박' 논제 설명

논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희생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개인의 자유를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한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고민을 심화시키면서 공론화하고 있다.

먼저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은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공익을 위한 제재(制裁)가 없다면 개인들 간의 자유가 충돌하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자유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집단과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은 공동체보다 선행하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은 '공공의 이익'이 다수에 의한 폭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개인은 다수의 비방과 박해가 두려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제8회 충북대학교 토론 대회 '논박'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